



최인식 | 서울신대

1. 서론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대응하는 데 현대 교회가 취하는 태도에는 배타주의, 포괄주의, 다원주의적 입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20세기 말부터 종교학, 종교철학, 종교사회학, 사회윤리학 등이 한 목소리로 입을 모으고 있는 것은 어느 종교도 종교다원주의적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종교다원주의는 ‘시대정신(Zeit-Geist)’이 되었다.

배타주의 기독교라는 옷만을 입고서는 이웃 종교인들을 다시 만날 수

1) 본 논문은 2013년 10월 4일 한국구약학회 학술대회(장소: 이화여대)의 주제강연 “신학적 종교다원주의의 성서적 적합성에 관한 물음과 새로운 해결점을 찾아서” A4 22쪽 분량을 재편집한 것임을 밝힌다.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종교들은 변하지 않았으나 종교들 간에 서로 이해하는 정도는 이전 시대와는 현저히 달라졌다. 더욱이 개신교가 종교계 안에서 배타적으로 자신만이 구원의 진리를 독점한다는 주장에 대한 외부의 비판과 더불어, 개신교 스스로가 다른 종교들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 기독교를 디자인하기 시작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1964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선포와 대화’를 기조로 하는 포괄주의 기독교라는 옷을 디자인했고, 이어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웨슬리 아리아라자(Wesley Ariarajah)를 중심으로 하는 대화소위원회 4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산 신앙들(living faiths)’로 표현된 여러 ‘다른 종교들’의 구원 가능성 인정 여부를 비롯하여 그와 관련된 신학적 이슈들에 대해 1990년에 발표한 ‘바아르 성명서(Baar Statement)’를 통해 종교다원주의 기독교라는 신제품을 공식적으로 출시하였다.²⁾ 한 마디로, 바아르 성명서는 세계 교회에 ‘종교다원주의 기독교’라는 옷이 어떠한 것인지를 공교회적으로 선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과제는 (I)종교다원주의가 논의되고 있는 네 가지 방법론적 방향을 구분하고, 그 중에서 (II)‘신학적 종교다원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재평가한 후에, (III)세계교회협의회(WCC)가 내놓은 ‘바아르 성명서’의 핵심을 밝히고, (IV)바아르 성명과 같은 신학적 종교다원주의 주장이 과연 얼마나 성서적인 적합성을 갖는지, 구약학 내지는 구약신학에서 대답해야 할 관련된 몇 가지 성서 본문을 연구과제로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자의 임무를 일차 마무리하고, 그리고 (V)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 간 만남의 가능성을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라는 시각에

2) 이 성명서는 1991년 제7차 세계교회협의회 캔버라 총회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선언문(Declaration)’으로 채택되지 못했지만, 단순한 ‘연구문서(Documents, Papers)’를 넘어 하나의 ‘성명서(Statement)’로 공교회적 차원에서 종교다원주의에 관한 입장과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헌이라 할 수 있다.

서 조명하고, 끝으로 (VI)종교 간의 만남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 간의 대화에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종교들 간의 화해를 위한 ‘화목제물’이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본 연구를 맺고자 한다.

2. 신학적 종교 다원론

오늘날 특히 기독교계에서 종교다원주의가 중요한 이슈가 되기까지에는 이러한 상황을 야기한 원인들이 있는 바,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종교다원주의의 특징, 범주 및 방향 등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해는 우리 논의의 명확성을 위해 반드시 요청된다. 대략 네 가지 차원에서 종교다원주의가 제기되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역사가 오래된 세계 종교들과 토착 종교들에 대한 많은 종교학적 연구들이 객관적인 보편성을 확보해 감으로써 특정 종교가 다른 종교들에 대해 절대적 우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종교학적 종교다원주의’ 혹은 ‘종교신학적 종교다원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슈라이어마허(Fr. Schleiermacher, 1768-1834)는 기독교를 여러 종교들 중의 하나로 인식함으로써 이에 근거하여 신학이 종교학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했고, 이어 트뢴취(E. Troeltsch, 1865-1923)는 신성(神性)도 역사 속에 주어졌을 때는 상대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상대주의를 말함으로써 기독교와 세계 종교들 간의 거리를 좁히는 데 영향을 미쳤다. 더 나아가 현실적 인간의 종교 경험과 전통들이란 다원적이며, 구조적으로는 서로가 통일적인 것을 향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엘리아데(M. Eliade, 1907-1986)와 같은 종교학자들의 사상들이 기독교 신학 안에 수용되어 ‘종교학’ 혹은 ‘종교철학’에 기초한 신학이 종교신학적 종교다원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사회 변동이 종교다원주의를 초래케 했다는 관점을 제시한 ‘종교사회학적 종교다원주의’이다. 이 말은 종교들 간의 관계를 종교 내적 상관관계보다는 보다 넓은 사회 안에서의 종교 간의 경쟁관계로 볼 때 종교다원주의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때 종교다원주의란 피터 버거(Peter L. Berger, 1929-)에 의해서 이해되고 있는 바, “다른 종교집단들이 경쟁적 상황에 공존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것”이며,³⁾ 여기에서 종교는 선택의 대상이 되는 “하나의 의견(opinion)”으로서 제 종교들의 “시장화(marketization)”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는 교회일치 운동이나 종교 간 대화 운동은 종교들 간의 경쟁적인 시장화 현실에서 교회들 간의 내부 연합을 도모하면서 종교의 세속화를 야기하는 세속적 이념들과 대치하기 위하여 세계 종교들 간의 연합을 모색하는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셋째는 ‘윤리 실천적 종교다원주의’이다. 이것은 길희성에게서 보이는 바와 같이, 종교다원주의 논쟁이 특정 종단의 신관이나 구원관 혹은 선교와 대화의 철학을 문제 삼기보다는 종교 간의 평화, 종교의 사회적 기여,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종교 본래의 사명을 위해 종교가 가져야 할 종교 간의 태도에 집중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공존하고자 하는 종교라면 자신이 신앙하는 진리만이 절대적이라는 배타적인 태도를 버리고 종교적 진리 자체에 대한 인식은 절대적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서서, 오히려 사랑의 윤리적 실천을 통해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⁴⁾

넷째는 ‘신학적 종교다원주의’이다. 대표적으로는 파니카(R. Panikkar)와 히크(J. Hick)에 의해서 전개되었는데, 이것은 종교학, 종교철학, 종교사회학, 사회윤리학의 관점에서 ‘종교들을 어떻게 보느냐’는 문제와는 달

3) Peter L. Berger, *The Sacred Canopy*(Garden City: Doubleday, 1967), 135. 김종서, “종교다원주의와 한국신학적 의미,”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1992), 407-445, 135쪽에서 재인용.

4) 길희성, “종교다원주의: 역사적 배경, 이론, 실천,” 『종교연구』 28(2002), 17, 22-23.

리, 기독교 신학의 본질 자체가 종교다원주의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차원이다. 앞의 세 가지 종교다원주의는 신학 외적 요인에 의해 기독교 신학의 본질이 그렇게 해석되는 측면이 강해서 그러한 종교다원주의는 상대적인 가치에 머무를 수 있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신학적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 신학의 원천(Quelle)인 성서와 교리 자체가 ‘종교다원적’이라는 이론이요 주장이다. 이때 ‘종교다원적(religious plurality)’이라는 개념은 그 성격상 양면성을 지닌다. 즉 한 면은, 문자 그대로 각각의 종교는 고유한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다원적 기독교론’의 모습이요, 다른 한 면은 그로 인하여 다양한 종교의 형태를 띠지만 궁극적 실재는 하나라는 ‘일원적 신론’의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주장들은 기독교 신학의 정체성 자체를 문제시한다고 보기 때문에 기독교계 안에서는 신학적 종교다원주의의 출현은 이전의 대부분의 신학 전통에 대한 매우 래디컬한 신학적 도전으로 이해되고 있다.

3. 바아르 성명서의 특징

신학적 종교다원주의를 공교회적으로 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세계기독교협의회 비공식 ‘바아르 성명서’의 발표로 신학계의 중대 이슈가 되었다. 성명서는 총 5항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 제2항은 하나님, 제3항은 그리스도, 제4항은 성령을 주제로 하여 이들에 대한 존재론적, 인식론적 범주와 그 특성을 신학적 종교다원주의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있다. 각 항에서 진술되고 있는 핵심 내용만을 정리함으로써 바아르 성명서의 신학적 종교다원주의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첫째는, 하나님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이를 넘어선 다른 종교와 종교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다. 결국 바아르 성명서의 첫 번째 주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한 아버지요 또한 하나님이라는 주장이다. 성

서의 이스라엘과 초대교회가 고백한 유일신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과 열방을 주재하는 창조주요 구원자로서 모든 종교 안에 자신을 차별 없이 계시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방식으로서의 종교 현상은 다양하지만 창조와 구원의 궁극적 실재는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실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둘째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명시적이며 인격적인 헌신에 근거한 구원신학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선 보다 우주적인 관점에서의 기독교적 신학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구원 행위의 신비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되는데, ‘그리스도의 양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이라도 그들을 지도하고 영감을 주는 종교 전통과 그들의 구체적인 환경 가운데 믿음과 진리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들로써, 즉 기독교 신학의 틀을 넘어선 방식으로써 구원의 신비가 유효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요 10:16)는 것이다. 그래서 성명서 제3항을 시작하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창조·구원의 행위”와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행위”에 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함을 전제적으로 밝히고 있다.

셋째는, 교회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역시 성령의 사역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성령 하나님은 다른 신앙인들의 삶과 전통 가운데서도 활동해왔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에 속하는 모든 것을 성령의 활동으로 인한 열매로 인정한다(갈 5:22-23; 롬 14:17). 또한, 성령의 현실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종교의 진리와 선함을 해석할 수 있고, “차이 나는 것들(things that differ)”을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분별로써 더욱 더 풍성해질 수 있다(빌 1:9-10). 그리스도와 성서의 해석자인 성령은(요 14:26)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신앙의 이웃들로부터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할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유산(deposit)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이끌며, 예상치 못한 새로운 지혜와 통찰에 이르게 한다.

여기에서 바아르 신학 성명을 현대 신학적 종교다원주의자들의 관점에서 요약한다면, 바아르 성명 역시 결국 ‘다원론적 기독교’에 ‘일원론적 신문’의 조화를 통해, 다양한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종교들은 각기 다양한 실재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들을 통해 한 분의 유일한 실재를 신앙하는 것임을 밝히려는 것이며,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 신학적 종교다원주의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바아르 성명서는 이처럼 현대 교회의 신학에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만한 종교다원주의적 기독교 신학을 제창하고 있다. 전통적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이해에서는 부정되었거나 소홀히 다루어졌던 의제들을 래디컬하게 새로운 각도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아르 신학 성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한 자연 신학적 이해에 혹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신학에 기초하여 ‘타종교의 신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며, 그에 따라 종교 간의 대화는 사회 문화 윤리의 차원을 넘어 종교 일치라는 보다 커다란 기획을 추진할 수 있는 신학적 기반도 마련하게 된다.

4. 바아르 성명서와 성서적 적합성

1980년대부터 현금까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신학적 종교다원주의에 관한 논쟁은 사실상 지난 1990년 바아르 성명서에서 일단락 마무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바아르 신학 성명은 세계교회협의회가 소위 일반 신학계에서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와는 성격적으로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타종교의 신학’을 세워나갔다는 차원에서는 ‘신학적 종교다원주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아 있는 문제는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 ‘신학적’ 주장이 열

마나 ‘성서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있는 지에 대한 검토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바야르 성명은 현대 성서학계에 커다란 과제를 제시했다고 보아야 한다. 성서학계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바야르 성명의 종교신학적 주장의 성서적 적합성을 뒷받침해 줄 때 야만 종교다원주의 찬반논쟁은, 유아세례론이나 이중예정론과 같이 교회의 선택적 문제로 넘겨질 수 있을 것이다. 바야르 성명이나 기타 종교다원주의와 관련된 아젠다에 대해 성서학자들이 적극적으로 밝혀줄 때 비로소 문제 해결의 추진력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구약학자들에게 주어지는 성서 텍스트와 의제들 가운데 다음의 주제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⁵⁾

1) **하나님의 아브라함 ‘선택’과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과 그런 선택에서 유기(遺棄)된 자들 사이에서 구원은 오직 선택된 자들에게 한정되는가? 유대교나 기독교 모두 하나님의 선택 사상을 왜곡하여 자신에게 적용하여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는 배타주의 또는 분리주의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성서의 선택 사상에 충실한 것인가?

2) **하나님이 아담과 노아와 맺은 보편 계약:** 인류 전체를 향한 창세기 1-11장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을 창조하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이다. 집회서 17장 1-22절에는 인간(아담)과의 영원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창세기 9장에서는 노아와 계약을 맺으시고 무지개를 그 증표로 제시하였다. 인류가 범죄함으로써 그들과 맺은 소위 ‘보편계약’은 폐기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보편계약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5) 케네스 크랙크넬, 이종찬 역, 「종교신학의 성서적 근거와 그 미래: 목사님 다른 종교를 어떻게 볼까요?」, 원명: K. Cracknell, *Towards a New Relationship Christians and People of Other Faith*(서울: 한들출판사, 2002), 54-107. 2장의 신약성서에 나타난 대화에서 바울과 관련하여 몇 가지의 구약성서 본문을 소개하고 있다.

3)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웨(YHWH)'와 이방 민족들: 창세기 14장 18절 이하에서 가나안의 토착 사제인 멜기세덱은 자신의 고유한 신의 이름 '엘 엘리온'을 불렀고, 아브람은 곧이어 22절에서 하늘과 땅의 주재인 '엘 엘리온'과 함께 '야웨'를 병용하여 부른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엘 엘리온 אֱלֹהֵי עֵלְיוֹן)' '하나님(야웨 יהוה)'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이 두 이름은 동일한 실재를 가리키는 것인가?

다른 한편, 출애굽기 18장에서 미디안 족속의 사제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제물을 바쳤다.⁶⁾ 이방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신의 이름이나 제의의 형식만 다를 뿐이고 신성의 본질은 동일한 같은 하나님인가? 이사야 19장의 말씀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차별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 말씀은 현대의 다종교적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⁷⁾

말라기 1장 11절에서와 같이("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구약성서의 종말론적 비전 안에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라는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아담과 노아와 맺은 '보편 계약'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맺은 '특별 계약'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4) 이방 민족의 신들과 우상숭배: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름의 신을 섬기는 것은 단지 종교 문화적 현상만의 차이로서 실제로는 동일한 신적 존재를 믿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6) "이드로가 말하였다... '주님(YHWH)이 그 어떤 신(elohim)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elohim)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다."(출 18:10-12, 새번역).

7) "그 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앗시리아로 통하는 큰길이 생겨, 앗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앗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앗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앗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앗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야,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사 19:23-25, 새번역)

그렇다면 성서에서 고발하는 우상숭배는 무엇을 말하는가?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종교와 신들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귀의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종교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자신들이 믿는 신은 하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인가?

구약성서 안에서 발견되는 이와 같은 종류의 주제들과 그와 관련된 본문들에 대한 주석과 신학적인 해석이 정당히 주어지기 전까지는 ‘신학적 종교다원주의’의 성서적 적합성 문제는 여전히 의문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학적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수용 혹은 거부에 앞서 보다 철저한 성서연구가 요청된다.

5. 이스마엘의 하나님

이러한 구약성서 본문들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은 배타주의, 포괄주의, 다원주의 모든 면에 열려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과거와 미래, 구약과 신약 성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등의 다양한 패러다임에서 현대의 종교간 대화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성서 본문들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성서의 증언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종교들이 서로 나뉘어 적대시하고 있는 종교적인 현실을 극복하게 하는 통합적인 관점은 없는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세상에 퍼져 오늘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로 나뉘어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빚어오고 있는데, 종교 간의 대화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성서의 이야기,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슬람교의 하나님과 유대교의 하나님이 어떻게 만날 수 있게 되는지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택함 받지 못한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의 미움과 아픔: 무슬림에 대한 바른 이해

종교 간의 만남과 대화는 단지 구원관이나 신관이 서로 어떠한 지 신학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다름을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시대에 이웃으로 함께 돕기도 하고 경쟁도 하면서 삶을 나누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러므로 무슬림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무슬림이 안고 있는 마음의 고통에 동감(compassion)하는 것이고, 나아가 고통당하고 있는 무슬림 때문에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⁸⁾ 그리고 무슬림을 향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유대인이나 무슬림 모두 역사적으로 무수한 고난을 받아왔는데, 그 양상은 서로 다르게 보인다. 유대인들은 성서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구원사적 차원에서 고난을 받아온 선택받은 민족으로 이해되어온 반면, 무슬림들은 성서시대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를 막는 테러리스트로 각인되어 옴으로써 그로 인해 고난을 받아온 것이다. 특히 이슬람은 7세기에 아랍 민족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자신의 조상이 애굽 출신의 여종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난 서자(庶子) 이스마엘이라 보기 때문에, 무슬림이 당한 고통의 출발을 이스마엘로부터(창 16, 17, 21장)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들과의 참된 마음의 만남은 어려울 것이다.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출산하지 못하자 사래는 애굽 사람인 자기의 여종 하갈을 소위 씨받이라도 삼아서 아브람의 대를 이어가기를 위하여 아브람에게 첩으로 주었다. 하갈은 자기 나라 애굽에서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삶이었으나 이제 타국이지만 종살이는 면하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될 수 있었으니 이것은 하갈에게 일대 축복의 사건이었다. 계

8) 참고: 박동현, “탄식하는 하나님 - 탄식하는 사람들: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탄식 현상.”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1990), 34-68, 64.

다가 아브람의 씨를 임신까지 하게 되었으니 하갈의 인생대로는 막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흔들릴 수 없는 신분의 상승을 확신한 하갈이 분수를 넘어 여주인 사래를 멸시한 것이 화근이 되면서 서로 간에 잠재되었던 미움이 현실로 나타나, 사래가 하갈을 확대하였고, 하갈은 사래의 확대에 시달려 광야로 도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미래의 희망인 아브람의 씨를 잉태한 채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 절망의 상태요, 그 끝은 죽음이었다. 이때 여호와와 사래가 하갈에게 나타나 여주인에게 복종할 것을 주문하였고, 아울러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창 16:10)는 약속을 하면서 낳을 아이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는 뜻으로 “이스마엘”이라 지어주었다.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주된 축복의 내용은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창 17:20)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번성하였듯이, 이스마엘도 12족속으로 대국을 이루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마엘을 축복한 후 “(그렇지만)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래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창 17:21)고 곧바로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그 촛대를 옮기는 장면을 보여준다. 그 후 아브라함은 이삭뿐만 아니라, 하갈과 또 다른 후처 그두라에게서 난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창 25:6)다. 이후 나머지 구약성서의 모든 역사는 사래에서 난 약속의 아들 이삭의 후예인 이스라엘에게 초점이 맞춰져나가게 된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역사상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은 7세기 동방의 무함마드와 이슬람의 경전 코란에서이다.

같은 아버지의 자식이지만 먼저 난 형 이스마엘은 ‘언약 밖의 사람’이 되

었고, 동생 이삭은 ‘언약의 사람’이 되었다.⁹⁾ 이것은 사람의 인정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수용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선택 받지 못한 자의 상실감과 그 상대에 대한 미움의 감정은 뼈에 사무치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이다. 가인이 그랬고, 에서가 그랬고, 이스마엘이 그랬다.

2) 이사야의 비전: 하나님의 영광의 집에 참여하는 이스마엘 후손들

그 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따라 이스마엘의 후손은 느바웃, 게달 등 12족속으로서 동방 지역에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후손들의 이름이 이사야 선지자의 종말론적 비전 안에 들어온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 영광의 집”을 짓고자 할 때 이스라엘보다 강성한 동방의 열국들이 이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자손들 중 미디안, 에바, 스바가 있는데, 이들은 언약 밖의 서자들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는 데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황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사 60:6)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어서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웃의 숫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사 60:7). 여기에서 게달과 느바웃은 이스마엘의 열두 아들 중 차남과 장남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이사야 60장의 비전이 마태복음 2장에 전개

9) 칼뱅은 이 본문을 통해 ‘이중예정론’의 전거로 삼고 있다. John Calvin/임원주 역, 『칼빈의 예정론 핵심 설교』 (서울: 예루살렘, 2000), 30. 본서는 칼뱅이 1562년에 프랑스어로 출판한 것을 존 필드(John Field)가 번역하여 1579년에 런던에서 *Sermons Entreating of the Free Election of God in Jacob and of Reprobation in Esau*란 제목으로 출판한 것이다. 영역본 참조: John Calvin, *Sermons on Election & Reprobation by John Calvin*, foreword by David C. Engelsma (Audubon: Old Paths Publications, 1996). 필자의 다음 논문 참조하라: “개혁주의 신학과 웨슬리안 신학의 대화를 위한 칼뱅의 이중예정론과 웨슬리의 예지예정론 비교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8(2013), 135-179.

되는 바대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점성가]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마침내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사건(마 2:11)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만일 이러한 해석의 관점이 성서신학적인 적합성을 지닌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인 이삭에 이어지는 야곱의 후예들에게 굴복당해 억지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참여시키는 것이며, 민족, 문화, 종교의 경계를 넘어 이루어진 사건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 언약 밖의 첫 이방인들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마태복음 3장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마 3:9)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 하신 말씀은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이사야 선지자의 종말론적 비전과 동방 박사의 아기 예수 경배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등 어느 종교도 자기의 절대성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종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는 자신이 유대교의 랍비였으나 유대교를 절대화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나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절대 진리를 독점하려는 모든 종교적 주장들을 무력화(無力化)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다시 이스마엘의 이야기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애굽 출신의 여종 하갈이 언약의 여주인 사래로부터 고통을 당했지만, 사래는 하갈의 고통에는 무관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사래는 자신의 아들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당하는 고통만을 생각하였지, 이스마엘로 인하여 당하는 하갈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았다(창 21:9-10). 그 결과로 남는 것은 그들 자녀와 후손들 사이의 숙명적 미움과 충돌뿐이었다.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는

광야로 쫓겨난 이스마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은 고통 당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한다. 즉, 하나님은 ‘이스마-엘’이기도 한 것이다. 그는 자신과 믿음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언약’을 맺은 백성들만 돌보는 신이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맺은 ‘보편적 언약’에 따른 열방의 백성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오히려 언약 밖에 있기에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창 21:17-18)

다른 한편, 역사적으로 볼 때 하갈을 쫓아내고 그녀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았던 사라의 자손들이야말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고향을 등지고 남의 나라에 몸 붙여 살기 위해 온 세계를 유랑하며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살았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하갈이며, 광야에 버림받아 우는 이스마엘이다. 또한,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하갈에게 고통을 가하고, 하갈의 고통을 무자비하게 방치한 사라이다. 사라의 자손들 같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실은 집 잃고 세계를 고통 가운데 떠돌고 있는 나그네와 다를 바 없는지도 모른다.

3) 미움의 벽을 무너뜨리는 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제는 사라와 하갈이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집 없이 나그네처럼 유랑하던 생활을 끝내고 스바의 황금과 유향을 가지고, 계달과 느바웃의 양과 숫양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의 집”(사 60:7)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동방에 살아야 했던 언약 밖의 아들들과 이스마엘의 후예인 동방의 박사들처럼, 이제 당당히 예루살렘 땅을 밟으며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인 선민이

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인 이방인 모두는 그들의 ‘속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언약들보다 앞서 있고, 그것들보다 크며, 모든 종교들보다 앞서 있고, 그것들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느 종교든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고, 스스로 그보다 더 크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의 모노게네스”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그와 존재론적으로 비교될 만 한 자가 실존한 바 없다.¹⁰⁾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대표하는 ‘유대인’과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을 대표하는 ‘로마인’ 모두에 의해 일어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의 후손과 하갈의 후손 모두에 의해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사라와 하갈 사이의 미움을 멈추게 하고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둘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엡 2:13-19). 하갈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 이스마엘 하나님은 고통의 극한에서 죽음의 광야로 내쳐지는 현대의 모든 하갈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지금도 듣고 계신다. 여기에 모든 종교적, 문화적, 민족적 전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감추어져 있다. 화해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그 사랑이 오늘날의 모든 사라와 하갈에게 울려 퍼지게 해야 할 것이다.

6. 화목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

문제는 기독교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10) 문우일, “요한복음 로고스 개념에 대한 철학적 고찰,” 『신약논단』 20(2013, 여름), 339-369, 369.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어떤 상징물로도 대체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하나님의 모노게네스(monogenes, 獨生子)’이다.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를 지탱한다는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가 태어나고, 그리고 교회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기독교라는 옷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기독교와 교회와 복음은 상관성을 지나나 동일하지 않다. 그리스도가 기독교를 지탱하기 때문에 다른 이웃 종교들보다 기독교가 가지는 특전이 있다. 예수의 말씀을 보존하고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세례를 받을 수 있고,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 등은 다른 종교들에게는 없는 기독교 안에서만 주어질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다고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아름다운 옷인 것도 아니고,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진 고급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기독교는 교회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만든 시대의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다른 종교들과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는 다른 종교들의 옷들을 보면서 교회가 그들을 만날 때 자연스러워 보이게 입을 수 있는 기독교를 디자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서가 증언하는 대로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고 또한 만물은 그의 통치 하에 있다(골 1:17; 히 2:8; 엡 1:22 등). 그러므로 그는 만물 안에서 종교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기독교니, 불교니, 유대교니, 이슬람교니 하는 종교나 철학에 의존하거나 다른 종교의 시조들과 비교되는 상대가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나 여타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의 시조라 부르는 것은 오류추리에 불과하다. 굳이 비교한다면 모하메드와 싯다르타와 모세와 같은 종교의 시조들과 베드로가 비교의 상대자들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위시한 소수의 예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세례를 받음으로써 교회가 태어나게 되었고, 그 시로부터 교회에 의해 기독교라는 옷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종교(宗敎)란 ‘최고의 가르침’ 즉 절대적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나 이념들끼리 서로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는 종교들 간의

관계는 다원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자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의 일차적 논제다. 이런 문제를 대할 때마다 기독교는 항상 딜레마에 빠져왔다. 종교 간의 다원성을 인정하자니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이 상대화 되겠고, 인정하지 않자니 기독교의 종교적 현실이 부정되겠고,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주장도 해보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종교 아닌 다른 무엇으로 이해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딜레마는 어찌서 발생하게 되었는가? 그동안 기독교의 창시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류추리로부터 대답을 찾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한 마디로, 그 모든 종교들에게 복음(福音)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곧 그가 종교들 간의 “화목제물”이 되신다는 의미다. 성서의 증언대로 만물 위에 그가 존재한다면 그는 만물 안에 있는 모든 종교들 위에서 자신의 뜻을 위해 섭리하신다. 그런데 그 섭리적 행위가 이미 그의 지상 사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이다. 이 사건을 두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요일 2:2)고 성서는 증언한다.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지상의 모든 인류 개개인 간이 되었든, 종교인들 간이 되었든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을 이루게 하는 화평이 되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엡 2:14-18) 하려는 화목 제물이 되지, 종교 간의 만남과 대화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 의의에 대해 무지한 소치의 결과다.

종교 간의 만남에서 특정 교회가 배타주의적 기독교의 옷을 입고 옷 자체를 절대화 했던 오류를 범했을 수 있다. 그때도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동일시하는 오류추리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종교 간의 만남에서 모든 종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그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화목제물이셨다는 것을 제대로 증언할 수

없는 법이다. 모든 종교는 어떤 형태이든 궁극적 실재를 향해 나아가 그와 하나 됨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보이지 않는 궁극적 실재와의 합일은 두 번째 치고, 보이는 사람들끼리 조차도 종교나 이념이나 세계관이나 정치체제 등이 다르다고 원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이를 안타깝게 보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노게네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사람들끼리 모든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엡 2:14-15) 종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자들과 먼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 간의 대화에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 간의 화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화목제물’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그가 종교들 간의 대화에도 ‘복음’인 이유이다.

종교 간의 만남에 정작 걸림돌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나름대로 절대적인 것으로 신봉하고 있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엡 2:15)이다. 그것은 각 종교들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것이라 믿는 교리, 전통, 의례, 신조, 규율 등과 같은 것들인 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이 종교 간의 화평을 시도하려는 모든 일에 “막힌 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 유대교와 이슬람 사이, 혹은 기독교와 불교 사이 등 모든 종교들 사이에 저들의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버티고 있는 한, 종교 간의 본질적인 대화는 한 치도 나갈 수 없는 것임을 이미 우리는 대화의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바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긴다.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수립하여 종교 간의 대화를 위한 자리에 나아가면 각 종단이 오랜 역사 동안 다듬어온 계명의 그 “법조문”들을 내려놓고 하나 됨을 위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높이 “막힌 담”만 서로 확인할 뿐이지, 둘이 하나가 되거나 모두가 추구하는 궁극적 실재를 향해 과연 힘을 모아 나갈 수 있

을 것인가? 교회가 종교다원주의적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고향의 종교’를 만날 때 그들도 동일한 종교다원주의적 불교, 종교다원주의적 이슬람교라는 옷을 입고 나온다고 해서 대화에 어떤 본질적인 진척이 있을 것인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시대에 모든 자들은 자신을 무장하고 있는 종교라는 두꺼운 옷을 내려놓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종교 때문에 전쟁하고, 종교 때문에 이웃과 담을 지고 살아야 한다면 그러한 종교는 차라리 폐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다가 자기 종교의 교리와 전통을 배타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정치와 야합한 교권주의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당한 자가 예수가 아닌가? 그래서 모든 종교의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가 아닌가?

이러한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상황에서 복음의 능력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먼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즉 기독교적 교리와 규례들을 앞세우지 말고, 예수께서 유대교인과 원수 된 수가성 사마리아교의 한 여인에게 다가갔듯이(요 4:7-24),¹¹⁾ 단순한 마음으로 다른 이웃 종교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엡 2:18) 된다는 약속이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율법의 법조문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성령의 감동으로 나의 이웃 종교인도 자신의 법조문을 내려놓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신학적 종교다원주의가 성서적 적합성을 지닌다고 입증된다 하더라도 종교 간의 대화와 평화의 해결점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모노게네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종교들이 단단히 무장하고 있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11) 박정수, “유대교의 사마리아 통합의 갈등과 초기 기독교의 선교,” 「신약논단」 14/1(2007, 봄), 197-239, 220ff.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 간의 평화에 걸림돌이 아니라, 화목제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막힌 담’을 허무는 화목제물이라는 이와 같은 ‘복음’이 종교 간 대화의 현장에 잘 들리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교회가 오래된 교리나 신조와 같은 법조문으로 된 옷부터 벗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대신 성령의 기독교로 옷 입어야 한다. 왜냐하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고후 3:6)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될 수 있고,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전 9:20-21). 다시 말해, 그렇게 되어야 어떤 종교인과 만나도 대화가 될 뿐만 아니라, 만남 가운데 특정 교리나 조문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고 진리와 사랑의 영으로 회개와 용서를 경험하게 된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기독교로 옷 입지 않으면 종교 간의 화해는 물론이고 교파 간, 심지어는 교파내의 사소한 대화도 어려운 것이다.

신학적 종교다원주의의 성서적 적합성 규명이 여전히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파니카의 다원적 기독교론이나 희의 일원적 신 중심적 종교다원주의는 더 이상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새로운 돌파를 위한 시도가 있다. ‘성령론적 종교신학’이 그것이다. 미국 리전트대학(Regent Univ.)의 아시아계 조직신학 교수 아모스 용(Amos Yong)을 비롯한 일군의 펜티코스탈 신학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바, 기존의 종교신학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 프로젝트로서 그 핵심적 작업은 비교 신학적 방법으로 제 종교들 사이에 보이는 성령의 임재와 활동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다.¹²⁾ 이에 관하여 앞으로 성서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연구할 내용들이 많다. 글을 마치면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확신이 있다: 복음에 의하여 태어난 교회

12) Amos Yong, *Beyond the Impasse: Toward a Pneumatological Theology of Religions*(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192; *Discerning the Spirit(s): A Pentecostal-Charismatic Contribution to Christian Theology of Religions*(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에 종교 간의 막힌 담을 허무는 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서적인 적합성을 지닌 신학적 종교다원주의 기독교마저도 벗어버리고, 오히려 성령의 자유로운 활동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 즉 화목제물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모든 교리와 신조와 같은 율법 조문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의 기독교(요 3:8)를 옷 입는 일이라는 것이다!

7. 참고문헌

- 김중서. “종교다원주의와 한국신학적 의미.”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1992): 407~445.
- 길희성. “종교다원주의: 역사적 배경, 이론, 실천.” 「종교연구」 28(2002): 1~28.
- 문우일. “요한복음 로고스 개념에 대한 철학적 고찰.” 「신약논단」 20(2013, 여름): 339~369.
- 박동현. “탄식하는 하나님 - 탄식하는 사람들: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탄식 현상.”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1990): 34-68.
- 박정수. “유대교의 사마리아 통합의 갈등과 초기 기독교의 선교.” 「신약논단」 14/1(2007, 봄): 197~239.
- 최인식. “개혁주의 신학과 웨슬리안 신학의 대화를 위한 칼뱅의 이중예정론과 웨슬리의 예지예정론 비교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8(2013), 135-179.
- Calvin, J./임원주 역. 『칼빈의 예정론 핵심 설교』. 서울: 예루살렘, 2000.
- Calvin, J. *Sermons on Election & Reprobation by John Calvin*, foreword by David C. Engelsma. Audubon: Old Paths Publications, 1996.
- Cracknell, K./이종찬 역. 『종교신학의 성서적 근거와 그 미래: 목사님 다른 종교를 어떻게 볼까요?』 서울: 한들출판사, 2002 (원명: Towards a New Relationship Christians and People of Other

Faith).

World Council of Churches. “Baar Statement: Theological Perspectives on Plurality”(15. Jan. 1990). 출처: <http://www.oikoumene.org>

검색어

종교다원주의

신학적 종교다원론

바아르 선언문

이스마엘의 하나님

화목제물

Is Jesus Christ an obstacle, or a peace offering in the period of religious pluralism?

In-Sik Choi, Dr. theol.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e first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eal the substance of theological religious pluralism that doubt the identity of modern christianity, the second purpose is to urge scholars of the Old Testament to make the right judgement in the texts of the Old Testament, and the last purpose is to propose the way of reconciliation among religions. For the first purpose I introduced the various theories of scholars, and I analysed the theological religious pluralism that the Baar statement of WCC claims. The Baar statement rest on the theology of religions by J. Hick and R. Panikkar.

Als the Propose for the reconciliation among religions I made an attempt at the biblical interpretation(Genesis, Isaiah 60, Ephesians 2 etc)

www.kci.go.kr

that can support the pacificatory meeting among the Judaism, Christianity and Islam, and ultimately I suggested that Jesus Christ is not an obstacle of interfaith conversation but a peace offering. Lastly I claimed that the with doctrine and creed armed Christianity must be reformed firstly as the Christianity of the Soul for the interfaith reconciliation, otherwise it's never going to make the interfaith reconciliation as the theological theory of the religious pluralism.

Key word

Religious Pluralism

Theological Religious Pluralism

Baar Statement

God of Ismael

Peace Offering

- 투고일: 2014년 1월 01일
- 심사일: 2014년 1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4년 2월 01일

www.kci.go.kr